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 클럽 회보

Golden Club News

MARCH 2020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95

우애와 따뜻함이 넘쳤던 Florida 골프여행

매년 12 월에 시행하던 Myrtle Beach 골프여행을 금년에는 Florida 동창회의 초청으로 1월25일부터 2월1일까지 West Palm Beach 지역을 다녀왔다. 참가회원 24명과 Florida 동문 8명으로 모두 32명이었다. 적지않은 인원의 logistics를 훌륭히 해결한 홍종만 부회장과 현지 계동회(치대67), 조동건(공대64) 동문에게 깊은 감사드린다.

도착일 저녁은 Florida 동창회장 최희덕(사대68) 동문 댁에서 환영 만찬을 베풀어 주었고 떠나는 전날 저녁도 작별 dinner를 융숭히 대접해주어 섭섭함을 덜었다. 그리고, 닷새 매일 골프장까지 직접 김밥을 준비, 배달해 준 계동문을 비롯한 현지 동문의 헌신적인 봉사는 마음 속에 오래 남을 것 같다.

매일 바람도 없는 화창하고 온화한 기후는 추운 북녘 기후를 탈출해 온 우리에게 다정한 동문들과 함께 좋은 골프장에서 rounding 하며 일주일을 golf 낙원에서 보내는 즐거움을 주었다. Golf 장들은 Florida 명성대로 물(호수)이 많았으나 fairway는 fair 했고 green은 매우 빨랐으며 true green이었다. Course들이 길게



꺼졌으며 골프애호가에게는 바로 다시치고 싶은 골프장이었다.

이번 여행에 진봉일 (공대50) 선배님이 참여하셨다. 맘속으로는 5일은 힘드실까 걱정했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play 하셨다. 더 놀란 것은 long game이 현저히 향상되었고 매 stroke에 집중하는 game 운영이었다. 동반 play 한 모든 동문이 이구동성으로 감탄하였다. “아! 우리도 89세까지 골프칠 수 있겠다.”하는 희망을 주셨다.

이번 여행은 동문, 선후배 간의 우애와 가족같은 따뜻함이 넘치는 여행이었다. SNU 미주동창회의 역사가 짧지않으나 이번 NY 과 Florida 동창회 교류는 처음 있었던 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계속되기 바란다. 남북 교류는 언제나 바람직한 일이다. 가을에 Florida 동문들을 우리 가을 산행에 초청해서 함께하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손경택(농대57) 골든클럽 회장

2020년 신년교례회 안내

2011년에 시작한 신년교례회 10년차 행사를 시작으로 2020년 행사가 이어지는 큰 잔치에 겨울내내 움츠렸던 기지개를 펴고 활기찬 모습으로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그동안 쌓인 정담을 나누며 친목을 돈독히 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도 이준희 회원이 '가곡의 밤'을 준비하여 축제분위기를 연출하고 김정필 회원의 구성진 사회로 흥겨운 분위기를 이끌어 갈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코자 기념품도 푸짐하게 준비하고 있으니 많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소: DoubleTree Hotel, Fort Lee, New Jersey
- 일정: 3월 28일(토) 오후 4:00~9:30
 4:00~5:00 Registration, Cocktail
 5:00~6:00 총회 순서
 6:00~7:30 가곡의 밤
 7:30~8:30 Dinner
 8:30~9:30 여흥 순서
- 참가회비: \$100/single, \$150/couple
- 효율적인 준비를 위하여 참석여부를 미리 알려 주십시오.
- 연락: 홍종만 646-342-2667 hong1945@gmail.com

한경수 회원 선종

뉴욕동창회 31대 회장을 역임한 한경수 회원(문리대 57)께서 2월 14일 선종하셨습니다. 평소에 건강하고 운동을 즐기던 고인은 미미한 뇌 동맥류 증상 치료 수술 후 의식을 회복 못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유가족으로 부인 한예식 여사 그리고 세 분의 여식이 계십니다.

고인은 1974년 미주 농협지사장으로 도미하여 임기 후 Wall Street에서 금융 사업을 운영하셨습니다. 오랜 동안 골든클럽과 뉴욕 동창회에 많은 공헌을 하셨으며 평소에 골프를 즐기시어 동년배 골든클럽 회원들과 16년 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주 golf outing을 해온 모임의 중심이셨습니다.

장례 미사는 2월18일 퀸즈 한인성당에서 바쳐졌으며 유해는 Farmingdale 소재 St. Charles Cemetery에 안장되었습니다. 고인의 영혼이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그리고 유가족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도록 회원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기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민 회원 낙상 후 회복 중

골든클럽 상임고문 및 NY 동창회 이사장 정해민(법대55) 회원께서 1월31일 맥 현관앞에서 낙상하시어 대퇴골이 골절되었습니다. 다행히 당일로 수술 받으시고 Rockleigh, NJ에 있는 Jewish Home in Rockleigh 재활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정고문님의 강한 의지로 재활치료 과정을 열심히 밟으셔서 회복이 빨리 진행되어 2월20일, 3주만에 귀가하셨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수주는 맥에서 재활치료를 계속해야 하신다 합니다.

고맙게도 골든클럽 회원들이 많은 관심 갖고 병문안 해주어 대단히 감사하다 말씀드려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특히 감동받으신 것은 재활병원으로 2월17일에 60년 지기인 최수용 (상대 55) 동문이 이준행 (공대48) 골든클럽 명예회장님을 모시고 병문안을 오신 일이라 하십니다. 두 분 다 몸이 불편하신 데도 먼 거리를 찾아주어서 이회장님의 끊임없는 후배 사랑과 최동문의 변함없는 우정이 참으로 감격스러웠다는 말을 전하셨습니다.



NY 과 Florida 동문이 함께한 아름다운 추억

조동건 (공대 69) 전 Florida 동창회장

지난 9월 NY 동창회 소속이며, 이곳 Florida에 월동을 하는 계동휘 동문을 통해 NY 동창회 골든클럽에서 Florida Golf 여행을 계획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11월중에 골든클럽 손경택 회장님과 몇 분이 답사 차 Florida를 방문한다는 소식도 받았다.

Florida 동창회는 동문수도 많지 않지만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어 많은 동문들이 함께 모임을 가지기가 어렵고 또한 동창회의 실제 활동 역사도 길지 않아서 여러모로 미약한 동창회를 운용해 왔다. 그런데 NY 동창회의 Florida 방문과 Florida 동창회와 친선 행사를 가지겠다는 제의는 앞으로 Florida 동창회의 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기에, 10월초에 우리도 차기 Florida 회장인 최희덕 동문 댁에 모여 어떻게 이번 역사적인 모임을 진행하고 협조할 수 있을 가를 논의했다. 11월 손경택 회장님 및 3 동문이 Florida를 방문해 3일간 대화도 나누고, 낚시와 골프와 저녁회식으로 첫 양측 동문들이 앞으로 있을 친선 골프 행사를 논의했다.

준비과정은 골든클럽 홍종만 부회장의 연락으로 골프여행 일정이 1/26-2/1로 계획되었고 Florida 동문들이 Golf Course 와 머무를 숙소를 찾아주기를 부탁받았다. 숙소는 식사 준비를 할 수 있는 개인 주택을, 골프장은 가능한 숙소에서 가까운 곳으로, 그리고 Semi-Public Course를 찾았다. 많은 손님을 맞는 주인으로서 큰 걱정이 준비할 수 없는 날씨가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오는 전날까지 춥고 비 오던 날씨가 쾌청하고 시원한 한국의 가을 날씨로 NY동문들을 맞게 되어 너무 감사했다. 골프치는 동안의 점심식사는 계동휘 동문 제안으로 쉽게 먹을 수 있는 김밥을 5일동안 준비하고 두 내외분이 각 cart 마다 배달해 준 것은 우리도 감사하고 NY동문에게도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김밥 경비는 Florida 김중권동문이 기증했다. 도착일 최희덕 회장 댁에서 가진 전야제도 잊지 못할 아름다운 모임이었고, 특히 Florida 동문 외에도 월동하는

동문들도 많이 참석해 정말 뜻깊은 모임이었다.

짧았지만 골프와 회식을 함께 하면서 동문들이 동창이라는 끈을 통해 동문의 정도 나누었고 개인적으로도 무척 가까워진 것 같다. 처음 시작하는 행사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별다른 사고없이 모두 건강히 NY으로 귀환할 수 있어 또한 감사드린다. 이번 행사가 NY동문의 Golf Tour였지만, 이곳 Florida 동문들도 덕분에 많은 즐거움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던 것 같다. 이번 행사를 통해 앞으로 이곳 Florida 동문들, 특히 New York에서 Snow Bird 로 내려와 계시는 많은 동문들이 더 많이 Florida 동문 모임에 참석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행사를 준비에 온 정력과 열성을 다한 홍종만 부회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아름다운 행사와 추억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행사가 되기 바라며, 나아가 New York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Chicago 등 추운 지방, 겨울에 활동할 수 없는 지역의 서울대 동문들도 이곳 따뜻한 Florida에 함께 모여 Golf 와 여러가지 Entertainment를 통한 전미주 동창의 겨울 모임으로 전개됐으면 하는 꿈을 그려본다.

Florida 골프여행보고

홍종만 부회장

계동휘 회원의 제안으로 골프여행을 계획할 때는 망서리기도 하였지만, Florida 동문들의 열성과 참가회원들의 호응에 힘입어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20명 넘는 장년들이 5 bedroom 두 채에 수학 여행하듯 숙식을 함께하며 1주일간 지내는 동안 서로 배려하며 갈등없이 보내고, 별 사고나 차질없이 행사를 마칠 수 있었음은 골든클럽의 자랑이다.

이번 여행의 총비용은 \$16,926이었고, 뉴욕 출발 회원의 비용은 항공비용 외 1인당 \$832이었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즐겁게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음은 Florida 동문의 많은 도움 덕이었다. 동창회 출범이 일천한, Florida 동문들의 후대에 감사하며 Florida 동창회 발전 기금으로 행사경비 중에서 금일봉을 골든클럽 명의로 기부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젊은 주상선 동문 부부가 회원이 되어 함께 여행하였고, 송근숙, 홍정표 여성 회원이 행사에 적극 참여한 것도 큰 수확이다.

참가 회원: 계동휘 광승용/곽영신 권정덕/홍선경 김영만/김윤희 김익성/전순황 김인형 손경택 송근숙 송용길/송현자 신원철 오유섭 오인석 주상선/주난영 진봉일 한태진 홍정표 홍종만/홍예경

L. A. 동문: 노명호/노현숙 미주동창회 부회장

Florida 동문: 최희덕/이희문, 김중권 윤기향 조동건

Guests: 박종권 유영래 허강철



아름다운 인생의 마감을 준비하며

오유섭(의대 58)

지난 몇 십년간 친구들과 나는 대화 중 하나가 '우리가 80살까지 골프를 칠 수 있을까?' 였다. 어느새 80이 넘어 이번 골프 여행에 참가했다. 대 선배님들과 라운딩을 가진 덕분에 놀라울 만큼 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 티샷에서 퍼팅까지 한샷 한샷 최선의 기량을 보여주시는 물론 골프 룰이나 에티켓 면에서도 어느 누구보다 훌륭하셨다. '앞으로 몇 년이나 더 골프를 칠 수 있을까만 생각하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오히려 핸디는 올라가도 룰과 에티켓을 잘 지켜 언제나 평온한 라운딩을 가질 수 있도록 애써야겠다.

우리 남은 일생도 마찬가지로 아늑하고 싶다. 규칙과 질서를 유지하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열심히 살면 '얼마를 더 살 수 있을까?'가 문제가 아니라 기분좋은 골프 아웃팅과 같이 아름다운 인생을 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번 모임에 몸과 마음 다해 봉사해준 임원진과 현지 동문들 그리고 회원들 식사 준비에 애써준 여성 동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가족

권정덕(의대 58)/홍선경

뉴욕 Golden club에서 Florida golf trip 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뉴욕 지방에 사는 우리는 겨울로 부터 좋은 break가 될 것 같아 호응하였다. 우리는 은퇴 후 시간 제약을 받지 않는 자유를 만끽하기로 하고 Atlanta에 사는 딸을 방문하고 Florida로 가는 자동차여행을 택했다. 1월 26일 Boynton Beach에 도착하여 비행기로 온 그리고 근방 지역에서 온 다른 동문들과 합류하였다.

1월 27일부터 골프로 들어갔는데, 운이 좋아 매일 좋은 날씨의 연속으로 grooming이 잘 되어있는 좋은 golf

course에서 긴장감없이 매일 즐겼다. Golf 연륜으로는 89세의 진봉일(공대 50) 선배님이 참가하신 건장한 모습부터 golf 입문 6개월에 때로는 멋진 장타도 날리셨던 송근숙(간호대 66)동문의 대담한 모습 사이에서 각자 길고 짧은 자기의 실력을 심리적 부담없이 마음껏 발휘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특히 2021년 7월부터 미주동창회 회장을 맡을 노명호(공대 61) 부회장이 미동부, 서부, 남부 간의 긴밀한 연대와 협조를 구축하기 위해 LA에서 참석한 것이다. 그 적극성과 안목에 감사와 존경심을 표한다. "우리는 서울대학!", "우리는 한가족!"하고 건배하며 우리가 이렇게 SNU 큰 가족의 일원이라는 따뜻한 연대감을 짙하게 느꼈다.



동문들과 함께한 노년의 즐거움

곽승용 (의대 65)

아! 후로리다 골프장의 가슴이 확 열리는 경관이야! 야자수하며 많은 물 헤쳐드하며 아열대의 낭만에 빠져 본 사람만이 알수 있다. Fairway 호수 주변에 형형색색의 이름모를 조류(오리 학 야생 닭등등)들 자태를 뽐내고 가끔 원색의 이구아나등이 어슬렁 거린다. 뉴욕에선 한종류의 단색 오리만 보는데 이곳 오리 같은 오리인데 참 여러 색이다. 오리구이를 하면 맛이 다른런지. 참으로 이국적이다. Florida주는 골프장이 전 미주에서 제일 많고 은퇴자들이 살기 좋도록 resident에겐 State Tax, Sales Tax가 없다. Stone crab, oyster, winter strawberry, Florida orange

등 신선한 해산물이 유명하고 Cuban sandwich, Hooter's wing, gaiter tail 등이 유명하고 먹을만 하다고 한다.

이번 골프여행에서 참가한 모든 동문들이 동심으로 돌아가 농담하고 즐거워했으며 모두 한가족같은 가족애를 느꼈다. 특별한 경험이다. 특히 계동회동문(치 67) 내외분은 동문들을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부인께서는 김밥을 골프장을 누비며 나르셨고 친절, 상냥, 헌신은 그분을 더욱 아름답게 했다. 또 현지 동창회 조동건동문님(공 69)이 대소사를 밀착하여 골프장 예약, 벤 운전등을 세심하게 보살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LA에서 미주동창회 차기회장이신 노명호동문 내외분 동창회 발전을 위해 특별히 참석하셔서 이번 행사를 빛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큰일에는 작

은 실수, 불만도 생길 수 있겠지만 특이한 사항이 없었고, 모두 만족하고 즐거웠던, 오랜만에 젊어지는 이번행사는 A+ 점수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끝으로 노년의 즐거움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 오랜 동반자 친구 연인인 남편 아내와의 깊은 새로운 관계의 발견과, 이해 관계없이 그냥 좋은 친구, 그리고 귀한 새 친구와의 만남, 방랑시인 김삿갓같은 여유, 웃고 즐기는 시간, 세상의 새로운 이해, 포용하고 용서하며 궁홀히 여길 줄 아는 행동 등은 노년의 특권이며 즐거움이다. 이런 마음과 행동은 우리 몸에 endorphin을 분비해 면역체계를 높여 건강하고 즐겁게 한다는데, 여러 동문들에게 이번 여행은 이 논리와 부합하는 좋은 이벤트였다. 이번 에 못 오신 회원들 앞으로 많이 참석해 오래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기 바란다.

관점의 차이 (效率 vs 情)

주상선 (공대 73)

우리는 같은 사물을 보고도 서로 다르게 느낀다는 사실을 잘 알고있다. 새가 지저귀는 것을 보고 한국 사람은 새가 운다고 하고, 서양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고 한다. 40여년을 제조업에 종사하고, 은퇴를 하고 나서 처음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관점의 변경이었다.

회사 초년 시절 인천에 근무했는데 서울로 외근을 나가면 잘 이해되지 않는 것 중의 하나가 있었다. 지하철을 타거나, 걸어서 이동하면서 지나치는 수많은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근무 시간에 일을 안하고 돌아다닐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을 하고는 했다. 한국에서의 회사 생활은 토요일 포함, 새벽에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출근하면, 보통 자정 무렵에 돌아오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일요일 한끼 정도가 그나마 얼굴보며 식사를 할수 있는 시간이었다. 1년에 몇번 있는 연휴나 하계 휴가에는 해외는 업무를 하니, 대부분 해외 출장 일정이 잡히곤 했다. 나의 모든 시간과 관심은 회사가 중심에 있었다.

자녀 교육 등, 집안 관련 일은 모두 아내의 몫이었다. 돌이켜 보면, 40여년 동안 가족여행을 다녀온 기억이 거의 나지 않는다. 두 아이의 그 많은 졸업식에 아내만 참석했지 나는 참석한 적이 없다. 이상한 것은 그 기간 동안 아내도 나의 회사일 우선 원칙에 동의하고, 감내했다는 것이다.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 애들 키우는데 내가 한 역할은 눈꼽만큼도 없다고 구박(?)을 받아도, 유구무언, 내가 감내하고 지낸다.

은퇴한 현 시점에서 이 문제는 그런대로 해답이 쉽게 나왔다. 회사일이 없어졌으니 자연스럽게 가정사가 우선, 아내가 원하는 것이 우선이 되었다. 아내가 그동안 남들은 다들 잘만 다녀 오는데, 우리는 뭐냐고 대표적으로 거론한 칸쿤, 하와이, 크루즈, 일본 여행 등을 우선적으로 시간이 나는대로 다녀 왔다. 그런데 이제 부터가 어렵다. 그동안 시간을 못내서 못 해본 것인데, 남들이 얘기하면 해보지 않았으니 우리만 뒤쳐진 기분이었는데, 막상 한 번

씩 해보니, 적응이 잘 안되고 별거 없다는 기본인 거다. 뭔가 빠진 기분이다.

대조적으로 학과 동기 모임 중 가장 큰 행사로 매년 가을 부부 동반 국내외 여행가는 것이 있다. 한국에 근무할 때는 시간을 못내어 가끔 참석을 하다, 미국 법인 파견 후 작년에 10년 만에 참석을 했는데 시종일관 재미있었다. 오랫동안 잘 알고 지낸 친구들이고 공통 관심사와 화제거리가 있어서라고 생각된다.

대 선배님들 앞에서 얘기하기는 미안하지만 나이가 들어 갈수록 정이 생겨날 수 있는 조건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현역이었을 때는 목표(효율성, 이익)만 맞으면 함께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은퇴후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만나는 전 직장 동료들은 급격히 줄어들음을 느낀다. 오히려 뒤로 밀려 있던, 친지, 동창 행사가 이를 대체한다.

미시건에 있을 때, 작은 애가 지금의 사위를 인사시키러 뉴욕에서 비행기로 공항에 도착했다. 토요일이라 아내와 마중을 나갔다. 주말을 같이 잘 지내고 월요일 돌아가는데 나는 출근하고 회사에서 이용하는 리무진을 보내주려고 했다. 아내는 내가 직접 공항에 데려다 주라 하였다. 과거 나의 효율 중시와 아내의 정이 부딪치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아내는 보통 때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애들과 연관되면 양보가 없었다. 그 당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지만, 아내가 워낙 강하게 나와 \$100 이면 될 일을 내가 왜 2시간 씩이나 운전해야 하나 툭툭대며 공항에 갔던 기억이 난다. 지금 관점에서 보면 내가 얼마나 무미건조 했는지 상상이 된다.

미시건에서 근무할 때는 매년 친구들이 Florida로 골프 여행을 가는 제안을 받아도 시간을 내지 못해 참석을 못했었다. 이제 시간은 되니 어디로 갈까 장소 물색 중에 골든 클럽 1 월말 Florida 겨울 골프 여행에 대해 소개를 받아 참여하였다. 처음에는 전혀 모르는 선배님들의 친목 모임

에 이렇게 갑자기 끼어 들어도 되나 우려가 되었다. 막상 도착하여 인사를 나누고, 같이 골프를 치다보니, 금새 서먹함도 없어지고, 이렇게 재미날 수가 없었다. 이 나이에 막내(?)라고 더 챙겨 주시는 것 같아 쑥스러웠지만, Florida 동문들의 열성적인 지원과 골든 클럽 선배님들의 헌신적인 준비, 진행, 마무리 과정을 보니 동문의 정을 빼고나면 설명이 안된다.

합속도 같이 하면서 정겹게 지내시는 선배님들을 보며 구호인 “Healthy and Happy Life”가 실천되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앞으로 내가 추구해야할 목표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실전 가르침을 받았다.

Florida 골프여행후기

우리가 처음으로 만든 이다리

송웅길 (신문대학원)

우리 송웅길 부부 감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Florida 윤기향(법대 65) 동문이 말한대로, 뉴욕동창회 골든클럽, 후로리다 동창회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과 다리를 개척하며 큰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만든 이 다리를 후배들이 계속 건너며 즐거운 시간되길 바랍니다.

우리 부부는 귀중한 동문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특히 최희덕(사대68),이희문 목사부부가 후로리다 동창회장으로 열성을 다하여 봉사하기를 다짐하고 첫 번째 행사로 저희를 초청하며 교류를 시작 하였습니다. 또, 90을 바라보는 진봉일(공대50) 선배님, 5일 연속으로 골프 완주하셨습니다. 6박 7일 동안 골프 잘치고 저녁이면 맛있는 음식 나누며 즐거운 추억이었습니다.

MIRACLE ON ICE

The Greatest Sports Upset of the 20th Century

정도현 (공대 57)

It feels like yesterday, although this sporting event happened exactly 40 years ago. Whenever I recall the TV call of the final seconds of the game by Al Michael for ABC in which he declared "Do you believe in Miracle? YES!!", I still get a goose bump. In year 2000, Sports Illustrated named it "The Greatest Sports Upset of the 20th Century" and they even went further and said, "The Top Sports Moment of the 20th Century."

Of course, it was the Semi-Final Hockey game between Soviet Union & USA on Feb. 22, 1980 at the Lake Placid Winter Olympic. It is the story of David vs Goliath. The Soviet Team was considered one of the greatest hockey teams in the history of the sports, finely tuned attacking juggernaut molded by Anatoli Tarasov, aka the Father of Soviet Hockey who recently trashed NHL All Stars 6-0. US team, as opposed to Soviet, composed of mainly young college players with a very demanding coach, Herb Brooks, who won 3 NCAA Div.1 championship in 7 years with the Univ. of Minnesota. Realistically, what US was hoping for was to advance to Medal Round & may be in contention for the Bronze Medal.

However, Brooks had an audacity to challenge hockey powers. He had a plan. He selected final roster of 20 players mainly from the North East & Mid-West with working class family upbringing who can take hardship of grueling training with attitude. As means of uniting the players, he created a common enemy they can hate together. He made himself the Target. He drove every player relentlessly for 7-month training & exhibition games. His goal was to play European style of finesse game while maintaining North



American physicality. His skating drill called "Herbie", his name sake, was legendary.

Now with team unity achieved, he saw the team is peaking in right time with some confidence. Olympics is a One Game affair. If US plays 100 times against Soviet, they will most likely lose 99 but they may win one. That can happen in this Olympics. They went through Olympic preliminary round impressively and met Soviet in the medal round. Before the game at dressing room, Brooks made a brief motivational talk. "You are born to be a Hockey Player; you are meant to be Here and This is Your Moment."

The game was intense. US was trailing most of the times, but they stayed close. This is what Brooks was hoping. If we stay close to Soviet, let's say 1 or 2 goals down to the third period, who knows. US 2 & Soviet 3. Mark Johnson scored. Now tied. Exactly midway point of 3rd period, captain Mike Eruzione scored. US is up 4 to 3. US trailed all 7 games they played in the Olympics but they

came back all in the 3rd period. US had been stronger than any one at the end. Now the problem is too much time left. For 10 min. Soviet can score 5 goals easy. Brooks yelling at his players, "Play your Game." Don't get into a defensive shell. The big defense man, Ken Morrow, smashes anything with red color. Players jumping on to the ice as if they are playing shinny hockey in the Charles River or lakes of Minnesota with the youthful enthusiasm & abandonment.

One other interesting fact was that Soviets were never been in this situation. They never trailed in the 3rd period. They never envisioned the situation they are in and didn't know what to do. They began to panic with clock ticking down. They kept pouring on but US goalie Jim Craig made some fine saves while bodies are flying all over the place. And the time finally ticking down to 60 seconds, 30 seconds, 10 seconds with a final wild scramble, pucks cleared US zone. Sportscaster Al Michael delivered his famous call, "DO YOU BELIEVE IN MIRACLE? YES!!" As team ran all over the ice in celebration, coach Herb

(Miracle on Ice 6면에서 계속)

Golf, Courage, Ignorance, and Life Experience

Kunsook Song Bernstein (송근숙, 간호대 66)

Brooks sprinted back to the locker room and cried. Again, he didn't want to show his emotion.

There was still one more game left for the Gold against Finland. If they lose to Finland and, depending on other team's results, US can be out of medal contention. Brooks told to players, "Hey Guys, if you lose this game, you will take it to your fucking graves." At the locker room door, he told to them again, "Your Fucking Graves." Of course, US won. Once again coming back in the 3rd. period. A Well Deserved GOLD MEDAL.

More than a dozen of players of US squad ended up playing NHL, some with a great career. Brooks also coached NHL team including NY Rangers. Herb Brooks died in 2003 with car accident. A brilliant, enigmatic, sometimes an obsessive man, single handily molded the miracle team. Every member of Miracle Team came at his funeral. They all told the love-hate relationship they had with him. They were yearning to hear from him say, "Hey Guys! I love you." He never did. He wanted them to be united to the end. That's Herbie "

PS: I dedicate this article to late Kyung Soo Han, A Golden Club Member, great friend, one of my best drinking buddies.



I joined the SNU Golden Club in the Fall 2018 before I retired from the Hunter College, School of Nursing where I worked as a full professor for 15 years. Preparing for the retirement last Spring 2019, I decided to learn how to play golf which was one of the items of my bucket lists. First thing I did was start taking golf lessons in June 2019 and have practiced with full of enjoyment and eagerness; I went to sleep thinking about swings and woke up thinking about postures.

Early December 2019, I got a group email from 홍중만 (Vice-President, Golden Club) regarding the Winter Golf Trip to West Palm Beach which was the first event for the year 2020. Since I was a full of enthusiasm and burning desire to play, I responded to Mr. Hong asking whether it would be acceptable to join the group as a novice player: a 71-year-old lady who held a golf club for the first time only 6 months Prior. His response was, “‘Getaway week’로 편하게 생각하시고, 동문 골프 동호인들과 어울림에서 즐거움을 찾으세요.” His encouragement and kind words gave me the courage and excitement. I contacted my long time best friend, 홍정표 (음대 67) who always pushes me to explore and experience things I have not had a chance to do. Well, that was the beginning of my golf adventure. I was too ignorant to be afraid of what was ahead of me.

The entire 5 days (1/27/2019 -

1/31/2020) of playing golf every day on a different golf course was truly a challenge for me, mainly because I did not want to be an obstacle to the other players and was concerned about interfering with their fun. However, I was greeted by the team players' gentle and helpful tips to improve my postures and swings and praises that I had a strong impact and a great deal of potential. In sum, I was inspired by them (without naming everyone) and learned many important tips for my swings, chipping and stance. Now I understood the old phrase, “Ignorance is bliss” and I was truly blessed.

Lastly, considering myself as an expert in organizing professional conferences and workshops during my professional career, I was totally impressed by both Florida SNU alumni group and Golden Club Executive team. Both teams systematically approached the details of every step of day-to-day activities seamlessly and pleasantly with dedications. Additionally, the atmosphere created by everyone who participated in this event with warmth, humors, and laughs was truly a symbol of a healthy family. It was like “coming home to visit and experience the good old days.” There were no boundaries among different schools; 간호대, 공대, 농대, 문리대, 미대, 법대, 상대, 음대, 대학원. Especially each member's spouse made it more like “One big extended family reunion.”

This trip was a truly memorable experience for me and gave me the opportunity to remember who we are; “우리는 서울대”, “우리는 한가족” whose phrases shared by the president of the Florida SNU alumni Association, Dr. Hee Duk Choi at the last supper of this trip.

공지사항

회원 명단 (103명 / 2020-02-20)

강교숙	김영덕	손경택	윤현남	임호순	최진영
강에드	김영만	손대홍	이강홍	장동만	최철용
계동희	김우영	손옥화	이국진	고애자	최학주
곽상준	김의성	송근숙	이기덕	정도현	추재욱
곽선섭	김인형	송용길	이대영	정수일	한영수
곽승용	김재경	송현자	이대영	정해민	한태진
구달희	김정필	송학린	이범선	조달훈	허용웅
권영대	김종울	신진식	이수호	조승자	홍사만
권정덕	김창수	이정차	이정필	조상근	홍정만
권태진	김현중	신용남	이중대	주상선	홍종만
김광수	노용면	양인회	이중석	주재양	홍예경
김광현	민준기	오 성	이준행	진봉일	홍지복
김동건	박기환	오순문	이준희	최구진	
김병순	박희병	오유섭	이용대	최병우	
김문경	배상규	오인석	이행순	최수용	
김문언	성기로	우규환	이용빈	최순채	
김상만	손갑수	유무영	임도혁	최준희	

골든클럽 2020년 행사 일람 Updated: 2020-0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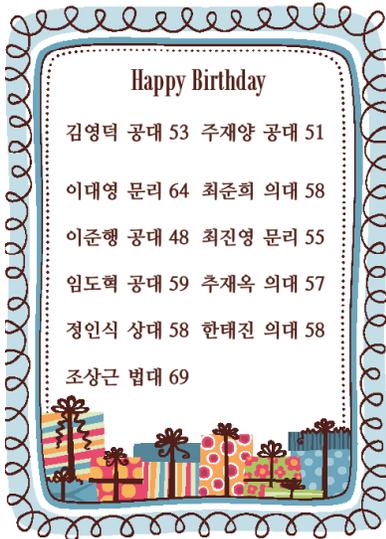
1월	1/26~2/1	Winter Golf Trip, Palm Beach, FL, 31명 참가
3월	28 (토)	신년교례회, Double Tree Hotel, Fort Lee
4월	16 (목)	Opening Golf Outing
	30 (목)	Hiking, Harriman State Park
5월	13 (수)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
6월	11 (목)	Golf Outing
	24 (수)	Picnic, Pizza Party
7월	9 (목)	Golf Outing
	22 (수)	문화, 예술, 정원 등 경승지 방문
8월	6 (목)	Golf Outing
	20 (목)	BBQ Picnic, Wechester County Park
9월	3 (목)	Golf Outing
	8일~18일	한국여행
10월	1 (수)	동창회 추계 골프대회
	22 (목)	Hiking
	29 (목)	Season-off Golf Outing

2020년 연회비 납부 명단 (33명 / \$3,300 / 2020-02-20)

강교숙	김우영	손경택	오 성	이정필	한태진
강에드	김인형	손옥화	오유섭	임호순	홍사만
계동희	김재경	송학린	이강홍	정해민	홍종만
곽상준	노용면	신진식	이국진	주상선	홍예경
권영대	박기환	이정차	이범선	채순채	
김병순	손갑수	양인회	이용대	최준희	

2020년 후원금 납부 명단 (7명 / \$4,100 / 2020-02-20)

손경택 \$1,000	이준행 \$1,000	한태진 \$500
송학린 \$500	임호순 \$300	
이강홍 \$300	정해민 \$500	



골든클럽 회원 귀하

골든클럽 컴퓨터연구원 강의 일정



뉴욕	매주 화요일 / 오전 10시 - 오후 1시 뉴욕새힘장로교회 47-33 Little Neck Pkwy, Little Neck, NY 11362
뉴저지	매주 월요일 / 오전 9시 30분 - 오후 1시 버겐카운티 장로교회 교육관 100 Rochelle Ave, Rochelle Park, NJ 07662

아래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AA**)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AA 261A 4th St., Palisades Park, NJ 07650
(T) 646-342-2667 (E) hong1945@gmail.com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생년월일: _____

단과대: _____ 학과: _____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전화번호: _____ Email: _____

주소 (Home): _____

- 입회비 \$200
- 연회비 \$100
- 후원금 (\$) _____

